

한국출판편집자상

Korean Publishing
Editor Award

2023
제2회

6.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5. 제1회 수상자

대상 금상 금상
이승우 · 이경아 · 김세원

4. 수상자

대상 금상 금상 특별상 특별상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3. 심사위원의 말

차미례 · 안상수 · 윤재승 · 부길만

2.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1.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중수

Contents

1. 인사말	[02]
2. 심사총평	[03]
3. 심사위원의 말	[06]
4. 수상자	[10]
5. 제1회 수상자	[20]
6. 재단 소개	[21]

1.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종수



제1회 심사위원장이셨던 정해령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한국출판편집자상’은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계에서 이런 상을 제정하여, 묵묵히 일하는 편집자들의 역할과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출판계의 여러 종류의 상은 있었으나 독립된 편집자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상한 세 분은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다. 편집에 대한 관점이 탁월했다. 세 분 외에도 수상할 만한 분들이 많아서 심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편집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내년에도 수상할 기회가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 상을 시상해야 하는 이유와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책 출판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 편집이라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종 시상이나 칭찬, 보상의 대상은 저자나 발간 회사가 중심이었다. 본상이 제정된 이유다.

종당 책 판매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 선진국들보다 더 심한 상황이다. 편집에 대한 출판계 및 국가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수한 편집자들의 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서 ‘국가 기간요원’인 편집자들의 부족 사태가 올 것은 틀림없다. 이는 출판계만이 아닌 국민의 문자 생활의 장애를 장차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 출판계의 경제 상황은 편집자 양성을 위해 초보자를 뽑아 훈련하기 어렵다.

대신 2,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더 주는 식으로 경쟁회사에서 뽑아오려 한 지 오래다. 그나마 경력자들은 수익이 많은 일부 출판사나 잘나가는 방송이나 플랫폼 업체에서 대부분의 출판계가 주지 못하는 월급으로 데려가 버린다. 그런데도 방송의 몇 자 안되는 자막 등 각종 마스크의 문맥에서도 오자는 점점 늘어만 간다. 출판은 편집 없이는 생각도 못 한다. 편집의 중요성이 또다시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재단을 대표하여 이 상을 궤도에 올려놓으신 정해령, 정병규 선생님에게 다시 감사드리며 올해 심사로 수고해주신 차미래, 안상수, 부길만, 윤재승 위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종수

2.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지난 해 시작한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제2회째를 맞은 올해에도 많은 응모가 있었다. 심사 대상자로 올라온 편집자는 모두 36인이었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성과물들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후보자들 출판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편집자로 한정한 규정은 이번에도 그대로 지켜졌다.

심사의 기준은 작년처럼 다음 세 가지를 전제로 하였다. 첫째, 편집관이 뚜렷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 둘째, 출판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오래 읽히는 책을 기획·편집한 사람. 셋째, 제출된 출판물에 대한 평가. 아울러, 판매 성과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기획·편집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편집자로서 꾸준히 장인정신을 실천한 인물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이 있었지만, 소수의 수상 대상자를 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 심사위원 전원이 세 차례나 모여 논의를 거듭했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대상 1인, 금상 2인, 그리고 특별상 1인, 출판사 대상 특별상 한 곳을 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판편집자 특별상과 출판사 특별상은 올해 처음 추가된 상으로, 출판편집 부분에서 탁월한 모범 사례라고 판단하여 특별히 출판계와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수상자 선정 결과와 수상자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상자 선정 결과

대상 | 이종백님

금상 | 조수정님

금상 | 김태희님

특별상 | 장경식님

출판사 특별상 | 슈류산방

수상자별 선정 이유

대상 수상자 | 이종백님

수상자는 1989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기획·편집자로 입사하여 34년간 근무하며, 한국학과 인문학 관련 서적과 각 분야의 우수 저술들을 출판편집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학술 출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출판물을 기획하고, 대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과 출판의 국제화에 공헌해왔다.

수십 년 동안 600여 종의 책들을 기획·편집한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물로는 우선, 『한국문화사상사대계』(4권), 『한국·중국·일본 연력대전』(6권), 퇴계 이항이 남긴 시 2,000여 수 전체를 한글로 풀이한 『퇴계시 풀이』전집(9권), 『주희시 역주』전집(5권), 『인문학육성총서』(33종), 『민족문화연구총서 및 자료총서』(30권), 『지역문화총서』 등을 들 수 있다.

수상자는 출판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도 적극 나서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출판계로 나가려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편집과 제작 실무 참여와 교육 지원,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콘텐츠 공모 사업 및 출판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수상자는 지역에서 독서프로그램, 북디자인 전시회, 특강 등을 실시함으로써 독서문화 향상과 독자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나아가, 연구활동에도 적극 나서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대학 출판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상 수상자 | 조수정님

수상자는 1994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월간 「디딤돌」 기자, 계간 「역사비평」 편집자 등을 거쳐, 역사비평사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역사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서적들을 꾸준히 기획편집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로는 『주자평전』(상, 하), 『사통』,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등이 있다. 『주자평전』은 주희의 전기이자 그의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인데, 상·하권 합쳐서 2,400쪽에 달하는 대작이다. 『사통』은 공자의 『춘추』, 사마천의 『사기』 등의 역사 편찬 체재를 벗어나, 사료 비판의 전형을 제시한 당나라 시대의 고전인데, 1,048쪽의 분량을 담고 있다.

이러한 두꺼운 번역서의 편집을 담당할 수상자는 내용의 통일성 유지, 저자의 원문과 역자의 번역문 대조, 주석 달기와 추가 설명, 문장 다듬기,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집요함과 끈기로 대작을 완성해 나갔다.

또한, 수상자는 현장과 밀착된 편집을 강조하고 실행해왔다. 책에 나오는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여 편집했고, 갈 수 없었던 해외는 온라인으로 또는 관련 영상을 찾아서 공부했다. 아울러, 출판에서 “묘한 매력”을 느낀다는 수상자는 편집 담당자와 공부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상 수상자 | 김태희님

수상자는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6년간 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기획·편집하며 아동·청소년 문학 발전과 독서교육에 이바지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을 살펴보면, 창비 편집 도서와 사계절출판사 편집 도서로 나눌 수 있다. 창비 편집 도서로는 『피노키오의 철학』 시리즈,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 등의 어린이 도서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미국 패권의 몰락』 등의 인문서가 있다.

사계절출판사 도서로는 우선 아동·청소년 도서로, 7,8세를 위한 책인 『사계절 웃는 꼬끼리』 시리즈, 청소년을 위한 짧은 소설 『독고독락』 시리즈, 『다윈 영의 악의 기원』(박지리 지음), 『비밀 소원』(김다노 지음) 등이 있다. 그리고 만화 관련 도서로 『달고나 만화방』 시리즈와 『1318 만화가 열전』 시리즈가 있다.

수상자는 이처럼 다양한 서적들의 편집작업과 함께, 무명 작가인 ‘박지리’를 알리는 <박지리 문학상> 공모 사업을 진행했

다. 이 과정에서 “불가사의한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출판 현장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열정과 겸손함,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편집자”라고 느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수상자는 “실패한 책, 실패한 계획을 살피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좋아하는 편집자”로 발전한다. 아울러, 수상자는 ‘평생 이어지는 작가와 편집자의 동지애’와 편집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출판의 모든 공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해왔다.

특별상 수상자 | 장경식님

수상자는 1986년 도서출판 책세상의 편집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1992년 한국브리태니커회사에 편집관리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이상 백과사전의 편집 및 연구와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한국 사전 출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가 편찬에 참여했던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은 영어판의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한국 독자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수상자는 이후 편집 책임자로 한국 어린이를 위한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 일러스트 중심의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 등 크고 작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류 책들을 펴냈다. 또한, 미래엔 발행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의 감수자로서 편집의 품질 기준을 높였고, 한솔수북의 『브리태니커 지식백과』의 편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디지털 시대 변화에 앞장서서 『브리태니커 CD』와 『브리태니커 온라인』을 개발했고, 이후 백과사전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금도 온라인 백과사전 항목을 편집하고 있다.

아울러, 백과사전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깊어져, 한국사전학회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세계의 백과사전』 등 다수의 연구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백과사전 출판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수상자는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전 출판 분야는 물론 출판계 전체의 편집자들에게 귀한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출판사 특별상 | 수류산방

수류산방은 문화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새로운 조합을 이루는 서적들을 만들어온 출판사이다. 2003년 활동을 시작한 수류산방은 그동안 80여 종의 출판물을 냈고, 수백 가지의 디자인을 했다.

대표적인 편집출판물로는 『20세기 건축의 모험』, 『예술사 구술총서』, 『이응노의 집, 이야기』, 『아주까리 수첩』, 『문신 : 문우를 향하여』, 『박수근과 미술관 총서』 등이 있다.

수류산방은 고집스레 그들만의 특성을 지키며, 기획과 디자인,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모든 책을 만들어왔다. 팔릴 책에 신경쓰지 않고 세상에 없는 그들만의 책을 만든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제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책에 도전한다. 여기에서 대담한 디자인과 독창적 편집이 탄생한다. 눈밖은 사람들은 수류산방을 찾아 기꺼이 출판을 의뢰해왔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제4회 파주북어워드 출판미술상을 받았다. 동아시아 4개국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출판문화상에서 수류산방이 출판미술부문 첫 번째 한국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출판사 특별상 수상이 계기가 되어 출판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AI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창의적인 편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온 출판편집자 네 분과 출판사 한 곳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출판계와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출판편집 한길을 걸으며 우리 출판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분들과 출판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04]

[05]

3. 심사위원의 말

차미례 · 안상수 · 윤재승 · 부길만

차미례 심사위원

한국 출판계는 오랜 세월 동안 ‘대표’의 활동과 생산품인 책의 ‘상품 가치’로 주로 평가 받았다. 출판상도 주로 출판사나 대표 이름으로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2회를 맞는 한국출판편집자상은 드디어 책을 직접 만드는 편집자의 가치와 역량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출판계의 발전상을 실감하게 한다. 편집자들의 이력과 이들의 역량을 한 눈에 보여주는 편집물의 수준도 매우 훌륭했다. 기획의 도나 종류별 주안점에 대한 설명도 당당했다. 심사과정도 공평했고 세심한 부분까지 거론했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출판계를 통해 실력을 알고 있던 분들과 3차의 토론을 거치면서, 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나에겐 3무(無)3경(驚)이었다. 심사대상에 대한 재단의 청탁, 압력, 출판사에 대한 고려 등 세 가지가 없었다. 어렵기로 소문난 출판업계에서 경력 15년이 넘는 우수한 편집자조차 ‘경력부족’으로 느껴질 만큼 많은 인재들이 장기간 이만한 실적을 낸 데에 놀랐고 그들의 포부와 당당함에 놀랐고 한국 출판의 외연을 넓혀 놓은 그들의 상상력과 기획력에 놀랐다. 좋은 기획이 높은 판매실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많았다. 결국 출판편집자상의 심사를 하면서 1980년대 초 일간지에 ‘출판면’(북 섹션)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고민에 빠졌다. 아까운 편집자(책)을 제외할 수밖에 없을 때 해결책은 더 많이 항목을 늘려 시상하는 것이다. 일간지 출판면 늘리기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차 편집디자인, 기획 등 각 부문별로 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아까운 인재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현재 내일신문 고정 칼럼니스트. (주) 뉴시스통신사 국제부 편집위원. 중앙일보(10기)공채 문화부 신입기자로 출발. 새 출판목록의 다양화와 콘텐츠의 내실이 상당 수준 이뤄지던 시대에 출판기자였던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임이 내다보이는 (재)한국출판금고의 「출판저널」 창간 편집주간을 맡았다. 신문에서의 경험을 살려 서평 대상의 선택, 비중과 균형, 무엇보다도 폐간이나 지면을 흔들어 개악하기 어렵도록 온 힘을 다해 「출판저널」의 기틀을 짜 놓으려고 노력했다. 한국 출판의 놀라운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출판계가 여전히 어렵고 출판 종사자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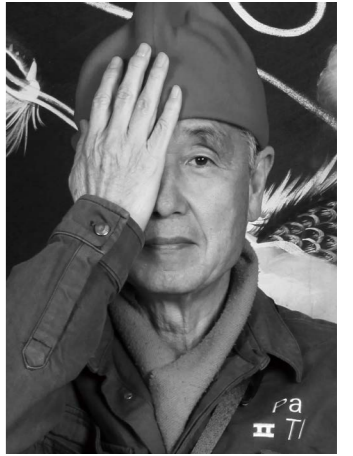
[06]

[07]

안상수 심사위원

편집을 생각하는 관점은 여럿일테지만, ‘몸 백 냥이면 눈 아흔 냥’이란 말처럼 책의 꼴과 품새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디자인 편집(Editoring by Design)’, 곧 디자인과 편집, 똑배기-장맛은 한 몸일 것이다. 번뜩이는 기획력, 외길 독심, 섬세한 손맛, 빛깔-사진-그림 눈 즐거움, 활자 모심의 정일함 등에서 만든이의 지적-미적 감성이 씨날로 엮인 분신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들의 삶과 공력에 경의를 올린다. 매 순간 즐거웠다.

그래픽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지냄. 주로 한글을 주제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하고 있다. 1985년 탈네모를 한글꼴 ‘안체’를 멋지었고, 실험잡지 「보고서/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002년 로댕미술관 초대 개인전 이후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날개.파티>전, 그리고 국내 및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참가.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주는 구텐베르크 상 받음. 2013년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파티(PaTI)를 여러 디자이너들과 함께 세워, 날개(교장)로 있으며, 왕성한 작업 활동과 새로운 창의교육 모험을 하고 있다.



3. 심사위원의 말

차미례 · 안상수 · 윤재승 · 부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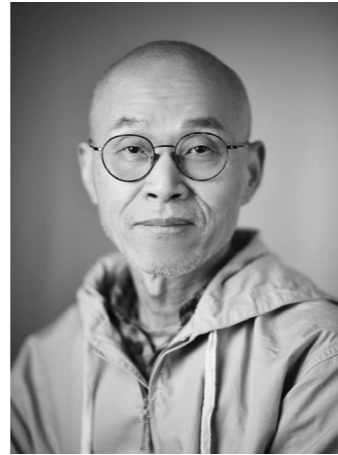
윤재승 심사위원

“심사는 힘들고 괴롭다.”

올해 심사는 힘들었다. 심사 기간 내내 번뇌 속에 있었다.

게다가 심사를 마치고 나면 마치 독감처럼 밀려오는 증세는 ‘혹시라도 내가 살피지 못한 것은 없는가?’하고 신청자들의 이름을 자꾸만 되돌아보게 된다. 편집 경력 28년, 32년, 37년/. 이들에게 ‘오.’ 하는 감탄사 외엔 딱히 사족(蛇足)을 달 수가 없다. 이들은 인생을 책과 편집에 올인한 분들이다. 이분들에게는 의미적 보상이라도 있어야겠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은 늘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현 한국고전번역원) 졸업. 논문으로 「해방 후 역경(경전번역)의 성격과 의의」, 「경허의 지음자 한암」 등 10여 편이 있고, 저서로는 『왕초보, 선(禪)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선불교-생활·철학·문화로 본 선불교』가 있다.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2017).



[08]

[09]

부길만 심사위원장

지난 해 시작된 한국출판편집자상이 금년 제2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제1회 때처럼 다수의 편집자와 출판인 및 언론인과 출판평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훌륭한 편집자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출판편집자 특별상과 출판사 특별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를 낼 수 있었다. 학술과 교양 부문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청소년 도서, 사전, 대학출판 부문으로까지 수상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처럼, 2회째를 맞이하며 출판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출판편집자들을 사회에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한국출판편집자상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우리나라 출판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졸업한 이후 영국 쉘리오크 대학을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잡지를 전공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새)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책의 역사』, 『출판산업 발전과 독서진흥』, 『한국 출판의 흐름과 과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출판학의 미래』, 『한국 출판 역사』, 『지역사회의 책문화 살리기』, 『우리 책과 한국사 이야기』 등이 있다.



4.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입사한 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대학출판협회 실무위원장, 부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자문위원이며 한국지역출판연대 이사로 있다. 2018년 올해의 대학출판인상 본상, 2022년 '책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표 작업 도서로 『한국문화사상대계』(전4권), 『퇴계시풀이』(전9권), 『주희시역주』(전5권), 『한국, 일본, 중국 연력대전』(전6권), 『인문학육성총서』(32종), 『바다의 왕국들』,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두 갈래 여정』을 비롯해 한국학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서들을 꾸준히 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총서』를 기획하였고, 20대-30대 청년들의 창의력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출판으로 지원하고자 표현의 너비(w), 안목의 높이(h), 사유의 깊이(d)라는 의미를 담은 <w.h.d> 브랜드를 설립하는 등 학술출판을 바탕으로 출판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작



- 1 대구의 전통음악과 근대음악
- 2 서양으로 간 명나라 사신들의 기록
- 3 주희시역주
- 4 청춘을 위한 융합인문학
- 5 퇴계시풀이
- 6 한자의 구조와 그 문화적 함의

[10]

[11]

학술출판이 대학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출판사에 처음 입사해 활판으로 찍은 갱지 교정지에 옥편과 자전(字典), 국어사전을 찾아가며 교정을 보던 때가 생 각합니다. 30여 년 동안 사진식자, 마스터, DTP, 오프셋, CTP, 디지털 인쇄, 이북, 오디오북 등 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텍스트를 매만지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열정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책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매번 새롭게 고민하느라 지겹지 않았습 니다. 또한 힘들게 만든 책을 눈 밝은 독자들이 알아줄 때, 무엇보다 보람이 크기에 편집자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지역에 위치하고, 대학에 속한 출판사라는 두 가지 조건은 수 도권에 집중된 출판 현실과 대학출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편집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여 좋은 책을 만드는 길밖에 없었기에 '지역출판'과 '대학출판'은 제게 늘 화두였습니다. 학술출판은 상업성이 없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콘텐츠에 담긴 깊이에서 경쟁력이 나오며 곧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뛰어난 연구 결과가 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식의 대중적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학문 연구의 장인 대학이 학술출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술출판이 대학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펴낸 책들이 백 년 이후에도 살아남아 현재의 대학이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의 뿌리가 되는 지역출판
지역출판은 지역 문화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역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지역 문화콘텐츠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콘텐츠와 저자를 발굴하고 독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튼실한 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역 관련 학술서를 꾸준히 펴내고, 『지역문화총서』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지역대학 출판 모임에서 소책자를

수상자 소감

만들 때 '새로운 것은 늘 가장자리에서 태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중앙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스스로 던져버릴 때 비로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만든 새로운 시도들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편집자로서 힘을 보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책(冊)과 편집의 편(編)이란 한자에서 보듯 편집자는 엮고 꿰매는 역할을 합니다. 도구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책을 만드는 기간이 짧아지지만, 저자·교정자·디자인·인쇄·제본 후가공에 이르기까지 술한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만 아름답고 훌륭한 책이 나온다는 사실은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책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는 이들과 관계를 엮고 조율하며 물성을 지닌 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의 수상 역시 이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겨 주신 김종수 이사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출판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해 출판으로 인연을 맺은 동료, 선·후배들의 지원과 격려를 편집자로 커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인간이 욕망을 벗어나는 길은 수도사처럼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물이 나도록 실컷 즐겨봐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라 했는데, 좋은 책을 만들려는 편집자의 욕망, 갈망이 은퇴를 앞두고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상이 자유로움을 향한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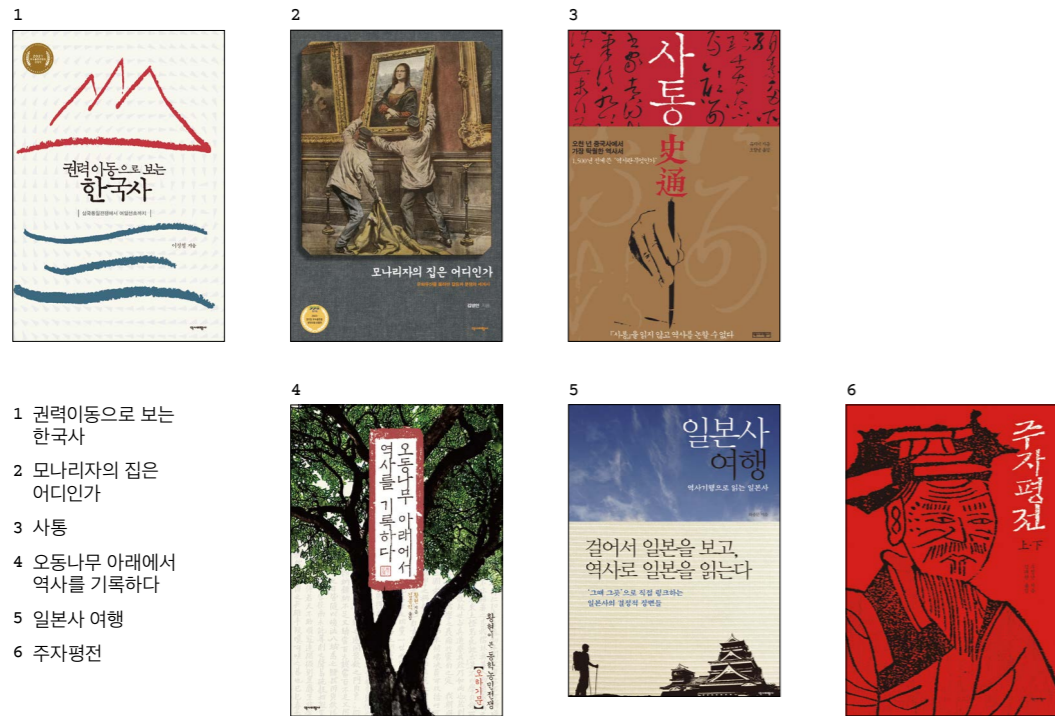
금상
조수정(趙水滸)



1994년 청소년 독서 교양 잡지인 「월간 디딤돌」 기자로 디딤돌 출판사에 입사했다. 청소년의 문화와 독서, 시사를 폭넓게 다뤘던 이 잡지가 폐간된 뒤 같은 회사 참고서 팀으로 옮겨 중고등학교 사회·역사 참고서를 편집했다. 2001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의 중학 「사회」 교과서를 담당하여 검인정에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09년 계간 「역사비평」 담당 편집자로 역사비평사에 입사하여 89호부터 2012년 100호까지 계간지 편집을 맡았고, 이후 단행본 팀에서 역사·인문서 편집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주요 편집 도서에는 번역서 「사통」, 『주자평전』,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알타』 등이 있으며, 전근대사에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실록이란 무엇인가』,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모후의 반역』, 『낮선 삼일운동』 등이 있고, 인문서에는 『임헌영의 유럽문학기행』, 『똥의 인문학』,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등이 있다.

대표작



- 1 권력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 2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 3 사통
- 4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 5 일본사 여행
- 6 주자평전

한 권도 아까운 책

2009년 8월 역사비평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장의 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신간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是我的 건강 때문에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권도 아까운 책이니.”

날짜는 두 달 전인 6월 12일이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서체가 많이 떨리고 흔들렸습니다. 별세하시기 1년 전 리영희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엽서였습니다. “한 권도 아까운 책이니” 이 한마디는 그 후 마음속에 간직하며 허투루 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소중한 책을, 아끼며 정독할 책, 지식과 지혜를 얻는 책, 위안과 기쁨을 받는 책, 사색과 성찰을 구할 책을 가벼이 편집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

[13]

우물과 같은 출판사에 걸맞은 편집자가 되기 위해

저는 29년차 편집자이지만 두 곳의 출판사에만 몸담았고, 현재 일하는 역사비평사에서 했수로 15년을 역사·인문서 편집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출판사에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보다 훌륭한 능력을 갖춘 선배와 더불어 역사·인문서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역사비평사는 우물과 같은 출판사라고. 그 의미까지 듣지는 못했으나 제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힘든 우물은 옛날 공동체 사회의 사람들에게 함께 마실 물을 공급해주는 식수원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었을 테지요. 역사비평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책을 내는 출판사로서 어려운 출판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길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역사·인문서를 펴내는 역사비평사에서 부끄럽지 않은 편집자가 되기 위해, 또한 출판과 독서 공동체의 우물과 같은 역사비평사의 존재 가치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소감

‘미치고 환장’하게 좋은 책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얼마 전 읽은 임헌영 선생님의 『노동자와 입술』이라는 수필집에는 ‘Demonish’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의 Demonish를 나쁜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천재급 인간이나 예술가의 전유물로 국한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Demonish를 내장하고 있으며,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를 향해 ‘미치고 환장’할 때면 누구나 Demonish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옳거니, 무릎을 치며 동의했습니다. 임헌영 선생님의 글쓰기가 그렇다면 제가 책을 만드는 일 또한 그러했습니다. 제가 감히 Demonish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를 검토하며 저자와 논의하고, 저자의 집필 의도가 잘 살아나도록 내용을 다듬고,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교정과 교열에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만드는 일은 분명 편집 자체가 주는 환희 때문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벽돌책’이라 일컫는 1,048쪽의 『사통』, 2,400쪽의 『주자평전』을 편집하면서 이 생소하고 어려운 책이 조금이라도 더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어려운 용어를 풀어주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는 주석을 역자와 함께 상의할 때,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실록이란 무엇인가』, 『모후의 반역』 등을 편집할 때는 조선왕조실록과 비교 검토하며 실록 기사와 어긋나는 서술은 없는지 검토할 때, 『일본사 여행』,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를 편집할 때는 저자와 함께(정확히 말하면 저자의 글과 함께) 박물관·미술관·기념관을(인터넷으로) 관람하고 저자와 저의 경험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다듬고 내용을 보강하는 일이 희열을 주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책. 저자, 디자이너, 인쇄·제작자들과 협업 없이는 온전한 책을 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선배와 동료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역사·인문서를 ‘미치고 환장’하게 좋은 책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갖고 편집했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6.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금상 김태희(金婉希)

1997년 9월 창작과비평사 편집자로 출판 일을 시작했다. 어린이 책과 인문교양도서를 만들다 2004년 9월 사계절출판사 아동청소년문학팀장으로 입사해 현재 기획편집부 총괄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재미있다! 우리 고전』, 『사계절 웃는 꼬끼리』, 『사계절 만화가 열전』, 『독고독락』 시리즈를 기획·편집했다. 대표 작업 도서로 『학교에 간 개들이』(김옥 글, 김유대 그림), 『어진이의 농장 일기』(신혜원 글·그림), 『걱정쟁이 열세 살』(최나미 글, 정문주 그림), 『나도 편식할 거야』(유은실 글, 설은영 그림), 『비밀 소원』(김다노 글, 이윤희 그림), 『합★체』(박지리), 『맨홀』(박지리), 『다윈 영의 악의 기원』(박지리),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이금이), 『지금은 없는 이야기』(최규석 글·그림), 『소년을 읽다』(서현숙), 『임꺽정(1~10)』(4판, 홍명희),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1~2』(이창현 글, 윤희 그림), 『단명소녀 투쟁기』(현호정),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심윤경) 등이 있다.

대표작



- 1 다윈 영의 악의 기원
- 2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 3 소년을 읽다
- 4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 5 임꺽정
- 6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14]

[15]

어린이·청소년 책을 만드는 마음으로
 지난해 이 상이 처음 생겼을 때, 일종의 의무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책 편집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출이나 성과로나 국제적인 위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 책은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가버어 여기는 정서가 출판 동네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러하고, 책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와도 관련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기 좋게 떨어졌고, 다행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기에 시침 똑 떼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시도해봤으니까 됐다 싶었는데 지난번 신청자 전원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에 낭패다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의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갈림길에서 다행히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전할 엄두를 못 냈을 텐데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7년에 창작과비평사에 입사해 어린이책과 인문서를 만들었고, 2004년부터는 사계절출판사에서 어린이·청소년 책을 비롯해 소설, 에세이,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차 때문에 후배들의 최종 교정지를 책임지고, 편집부 총괄이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책 만드는 생생한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지난해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그림책 『존엄을 외쳐요』, 소설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만화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 에세이 『번두리의 마음』 등을 직접 편집하였습니다. 상이란 물론 좋은 것이고 편집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영광이지만 개인적으로 편집자는 작가의 등 뒤에 서서 작가와 독자를 책으로 이어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에 이런 자리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출판편집자상’에 도전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책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상자 소감

어린이·청소년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1독자로 삼지만 쓰는 사람은 어른이고, 어른이 구매하고 추천하는 이중 독자의 세계입니다. 성인 책을 쓰는 저자들은 어떤 이야기든 아무런 제약 없이 써도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책 작가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되 항상 독자를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중으로 힘들지만, 쓰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갖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주류, 경계인, 사회적 약자에 자연스레 눈뜨게 되고, 그들이 존중받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의무를 깊이 깨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부조리한 세계를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위해 저항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는 이 세계의 편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자는 작가와 함께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독자의 세계를 세심하게 바라봅니다. 어린 독자들에게는 자칫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인 독자에게는 이토록 다양하고 고요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러기에 어린이·청소년 책 편집자는 다른 분야의 편집자들보다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고, 작가와도 두 배로 더 끈끈한 동지애를 갖게 됩니다.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단순히 활자로서의 물성을 가진 책이 아니라 작가를 비롯해 책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는 모두의 마음과 역사를 담아 편집자가 전하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오래도록 책을 만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성실하고 꾸준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편집자가 되려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린이·청소년 책을 만들던 때의 마음으로 날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편집자로서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문처럼 외우는 글이 있습니다.

“편집자는 모순된 자리에 있다. 때로는 피할 수 있다 해도, 건축에 관한 책도 다루고 인공지능에 관한 책도 다루고 나
 굿나잇 에세이도 다루어야 한다.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룰 때가 많다. ‘그래서’ 엉터리 책이 나오고, ‘그렇지만’ 좋은 책이 나온다. 이러한 모순된 존재로서 편집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첫째 ‘최초의 독자로서 생생하게 읽는’ 자신의 체험을 갖고 이를 반영하는 것, 둘째 자신을 믿지 말고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다.”-김이구, 『편집자라는 모순된 자리에서』 부분

더 많은 편집자들이 이 글의 전문을 찾아 읽고 편집자
 강령처럼 익히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사회생활, 시험문제 출제자이자 수습 기간 동안 숙제를 내주고 오랜 시간 제게 등 너머로 편집자의 세계를 보여주신 김이구 대편집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의 시험 감독관이었고 인문 팀 팀장으로서 좋은 선배의 역할과 리더십을 가르쳐주신 엄종선 선배님, 좋은 언니이자 인생 선배인 동시에 여전히 편집자로서도 제게 영감을 주시는 강말실 사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늘 정신없고 바쁜 엄마 밑에서 알아서 잘 키운 효빈이와 효린이에게도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6.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특별상
 장경식(張景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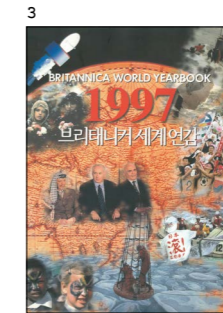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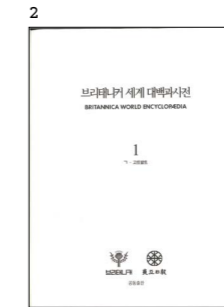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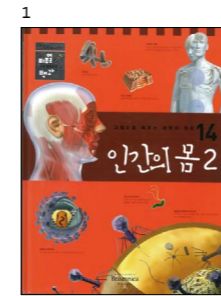


1986년 출판에 입문, 책세상출판사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1992년 한국브리태니커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백과사전의 편집자로 일했다. 1994년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완간 이후 1995년부터 편집 책임을 맡아 1996~1998년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의 편찬 전 과정을 지휘했다. 1993년부터 백과사전의 디지털 버전을 기획,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1999)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On-line』(1999)을 개발하는 한편, 전면개정판 『브리태니커 어린이 백과사전』(1999, 전 30권),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2004, 전 32권),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2009, 전 19권), 『브리태니커 지식백과』(2022, 전 8권) 등, 형태와 독자가 다른 여러 백과사전을 펴냈다. 2015년 한국백과사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사의 한국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면서 관련된 여러 백과사전의 개정과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전학회 창립회원으로 기획이사, 편집이사 등을 지내면서 사전 편찬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6]

[17]

대표작



- 1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
- 2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 3 1997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
- 4 브리태니커 지식백과
- 5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
- 6 잠들기 전 5분 잠 이야기



6.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출판사 특별상 수류산방(Suryusanbang)

suryusanbang

수류산방

2003년 말 기획, 편집, 디자인, 사진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 만들었다. 문화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새로운 조합을 이루는 단행본을 만들어 온 출판사이기도 하다. 책을 만드는 일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여러 분야, 전시와 공간 기획 등 다양한 작업을 해 왔다. 100여 종의 상업 출판물을 냈고, 수백 가지의 디자인을 했다. 2012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과 한글에 대한 전시를, 2015년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올해의 건축가 조성룡 전>, 2017년 보안여관에서 <건축의 소멸 : 소록도전>을 기획하는 등 몇 번의 전시 기획을 했다. 2011년에 국립예술자료원과 함께 예술사 구술 충서를 출간하기 시작해 그 해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그래픽 디자인 부문)를 수상했다. 2014년에 남촌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세상에 이런 책!>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 동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 북 어워드'에서 출판 미술상을 받았으며, 이는 상이 제정된 이래 출판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첫 수상이었다. 2015년 파주 국제 워크숍 <동아시아 책의 교류>에서 강의했고, 2016년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2018년 최은진의 세 번째 음반 『헌법재판소』를 발매했다. 2019년 『매일50』으로 독일 iF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했고,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 공모에 선정되었다.

심세중(수류산방 대표)

홍익대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수료했다. 성균관대 디자인 대학원에서 건축 도시 디자인 과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시 기획과 편집 분야를 오가며 일하고 글 썼다. 1997년부터 실험 무크 『보고서/보고서』, 1999년부터 월간 「디자인」 에디터로 일했고, 안그래픽스를 거쳐 2003년 말에 수류산방 설립에 합류했다. 2019년 문화재위원(세계유산분과)에 임명되었고, 2020년부터 성균관대 융합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쓴 책으로 의재 허백련 선생을 다룬 책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건축과 풍화』(공저)가 있다.



박상일(수류산방 방장)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의 기획 및 편집 업무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1992년부터 6년여 동안 SK그룹 발행 대학생 잡지 「지성과 패기」 편집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출판사 박가서장과 편집 회사 박가공장 대표로 활동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디자인하우스에 재직하면서 DES 사업 본부장과 월간지 「DOVE」 편집장을 지냈다. 2003년 말에 출판과 디자인, 전시 등 복합 문화 활동을 지향하는 수류산방을 설립, 프로듀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 41인>에 선정되었고(프로파간다 출판사), <페이퍼 로드 : 지적 상상(紙的想像)의 길> 외 디자인에 관련된 몇몇 국제전에 초대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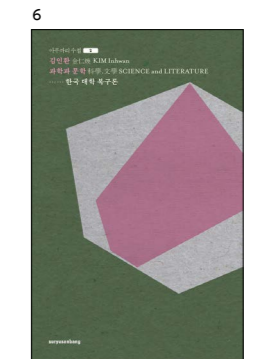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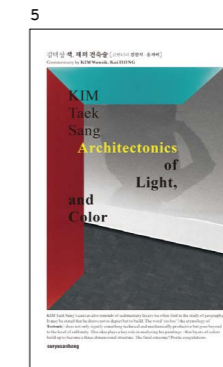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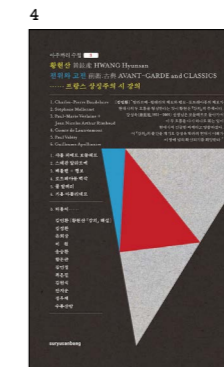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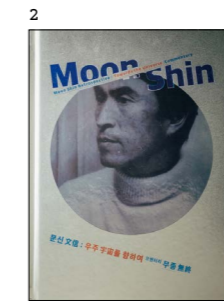
[18]

[19]

대표작



- 1 건축의 무빙
- 2 문신 2권
- 3 나무신화
- 4 전위와 고전
- 5 색,채의 건축술
- 6 과학과문학



5. 제1회 수상자

이승우 · 이정아 · 김세원

대상

이승우(李承雨)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주)도서출판 한길사에 입사한 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3년 기획실 차장으로 퇴사했다. 이후 같은 해에 도서출판 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선정한 '올해의 출판인' 편집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로도 있었다.

(주)도서출판 한길사 재직시 『한길그레이트북스』, 『한길신인문총서』, 『한길로로로』 시리즈 등을 기획했으며, 도서출판 길에서도 인문, 학술 분야의 『코기토총서-세계사상의 고전』, 『인문 정신의 탐구』, 『프런티어 21』, 『역사도서관』 시리즈를 비롯해 『발터 벤야민 선집』(전15권), 『게오르크 짐멜 선집』(전10권), 『막스 베버 선집』(전10권) 등을 기획, 출판해오고 있다.

금상

이정아(李京兒)



1998년 2월 출판계에 들어와 솔출판사에서 편집을 배웠으며, 일빛출판사에서 편집과 제작을 겸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2003년 9월, 돌베개출판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편집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작업 도서로 『열하일기(1~3)』(김철조 옮김), 『연암집(상·중·하)』(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지음),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1회화, 2서예)』(박희병 지음), 『열녀의 탄생』(강명관 지음),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김명호 지음),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신영복 지음),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신영복 지음), 『노무현 전집(전7권)』(노무현 지음), 『자본론 공부』(김수행 지음), 『정본 백범일지』(도진순 교감) 등이 있다.

금상

김세원(金世元)



200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언론자료간행회에 입사하며 출판계에 입문했다. 이후 거름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편집과 기획, 홍보, 해외도서 저작권 업무 등을 배웠고, 2012년 흐름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출판물의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과 동시에 조직관리 리더십을 배웠다. 2016년 길벗출판사에 입사, '더퀘스트' 브랜드로 경제경영서를 출간하는 새로운 팀을 론칭했고, 현재는 경제경영·자기계발·인문교양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행본을 출간하는 경제경영서실 실장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연감』에 경제경영서 시장 분석을 집필하고 있다.

6.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재단 소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9년 7월 7일 (사)한국출판금고로 출범하여 2002년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3년 현재까지 54년간 지속 사업 중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입니다.

출판진흥사업

1. 출판자금융자 사업(출판사 대상)
2.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직원 대상)
3. 단기출판자금융자(어음할인) 사업
4. 출판유통현대화융자 사업
5.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보급 사업
6. 한국출판편집자상 사업
7. 출판계 연구소 지원사업
8. 출판계 단체 지원사업

재단 연혁

- 1969. 07. 07. 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창립(초대 민유동 이사장 취임)
- 1972. 09. 중앙도서전시관 운영(1988년 12월까지 운영)
- 1974. 04. 출판자금융자 사업 개시
- 1985. 12. 24.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설립(초대 정진숙 이사장 취임)
- 2002. 11. 28.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1. 03. 제6대 김종수 이사장 취임
- 2022. 11. 24.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20]

[21]

Address.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Tel.

02-732-1434-5

Fax.

02-722-5406

E-mail.

tkpfs@daum.net

Website.

www.tkpf.or.kr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KOREAN PUBLISHING FOUNDATION